

## 4 차화된 폴리(4-비닐피리딘)과 메틸오렌지동족체와의 상호작용(I) 메틸오렌지동족체의 소수성의 영향

김 우 식 · 서 관 호

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 
(1985년 9월 27일 접수)

## Interaction of Quaternized Poly (4-vinylpyridine) with the Homologs of Methyl Orange. (I) Hydrophobic Effect of Dyes

Woo-Sik Kim and Kwan-Ho Seo

*Department of Polymer Science, Kyungpook*

*National University, Taegu, Korea.*

(Received September 27, 1985)

**Abstract:** The interaction of poly (4-vinyl-N-methylpyridinium iodide) with methyl, ethyl and propyl orange was studied by an equilibrium dialysis method at various temperatures. The first binding constants ( $K_1$ ) and the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the binding systems were calculated. It was found that the free energy change ( $\Delta G$ ) and the enthalpy change ( $\Delta H$ ) were all negative and the entropy change ( $\Delta S$ ) was largely positive. The longer the alkyl chain of the dyes, the more positive were  $K_1$  and  $\Delta H$  and hence the larger was  $\Delta S$ . The favorable  $\Delta G$  for the binding systems seemed to be a result of  $\Delta S$  rather than  $\Delta H$ . Temperature dependences of the thermodynamic parameters were apparently observed. That is,  $\Delta G$  and  $\Delta H$  became larger in absolute magnitude as the temperature increased. The positive quantity of  $\Delta S$  tended to decrease with increasing temperature. These results obtained could be interpreted by the hydrophobic interaction between alkyl groups of the dyes and poly (4-vinyl-N-methylpyridinium iodide).

### 1. 서 론

최근 여러가지 수용성 고분자와 저분자화합물과의 결합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<sup>1~9</sup>. 이들 연구는 생체내의 대사과정을 이

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섬유의 염색 기구를 규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.

Klotz 등<sup>6</sup>은 알부민과 저분자화합물과의 결합에 관한 보고에서 알부민의 소수성기들이 Cluster를 형성하여 여기에 저분자 소수성기들이

\* 本論文을 沈貞燮 教授 華甲記念 論文으로 증정합니다.

접근함으로써 저분자화합물의 결합이 용이하게 된다고 하였다. Takagishi 등<sup>7</sup>은 소수성이 큰 ring 화합물을 분자내에 가지는 폴리비닐피로리돈에 산성염료가 많이 염착된다고 보고하였다. Takagishi 등<sup>8</sup>은 가교폴리에틸렌이민과 저분자화합물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보고에서 가교고분자는 저분자가 결합하기 쉽도록 빈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합량이 많아진다고 하였다. Nakata 등<sup>9</sup>은 piperidinium polycation 을 이용해 서 산성염료와 염착을 시켰는데 주쇄의 cyclic 구조에 의해 염료의 염착이 용이하게 되어 염착량이 많아진다고 보고하였다.

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고분자- 저분자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저분자 소수성기의 영향을 검토한 것이라 할 수 있다.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- 저분자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고분자소수성기의 영향과 저분자소수성기의 영향을 비교검토하기 위한 전 단계로 poly(4-vinyl-N-methylpyridiniumiodide) [C<sub>1</sub>P4VP] 와 메틸오렌지 동족체와의 염착실험을 행하고 이 염착에 미치는 메틸오렌지동족체의 소수성영향을 검토하였다.

## 2. 실험

### 2-1. 시약

4-비닐피리딘은 일급시약을 일반정제법<sup>10</sup>에 따라 정제하였다. 아세톤, 초산에틸, 요오드화메틸, 니트로메탄, 중탄산나트륨, 인산이수소칼륨등은 일급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. 과산화벤조일은 벤젠을 용매로 하여 2회 재결정하였고, 테트라히드로푸란은 나트륨을 넣고 환류한 후 중류하였다. 메틸오렌지, 에틸오렌지는 일급시약을 체적비 1:1의 메탄올-물 혼합용매로 재결정하였고 프로필오렌지는 Hickinbottom 등<sup>11</sup>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합성한 후 에탄올로 3회 재결정하였다. 반투막은 분자량 10,000 및 1,000 이하의 화합물을 제거할 수 있는 Spectrum Medical Industries社

의 것을 각각 사용하였다.

### 2-2. C<sub>1</sub>P4VP의 합성<sup>12</sup>

4-비닐피리딘의 중합<sup>13</sup>은 과산화벤조일을 개시제로 하여 테트라히드로푸란 중에서 60°C로 15시간 가열하였다. 중합혼합물을 에탄올에 녹인 후 에틸에테르로 침전시켜 분리시키고 감압건조하였다. 제조한 폴리(4-비닐피리딘)의 평균분자량은 에탄올을 용매로 30°C에서 점도법<sup>14</sup>으로 측정한 결과 약 380,000 이었다.

C<sub>1</sub>P4VP의 합성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<sup>12</sup>. 폴리(4-비닐피리딘) 5gr 을 니트로메탄 100ml에 용해시킨 후 질소기류하에서 요오드화메틸 10gr 을 적하시키고 실온에서 24시간 반응시킨 뒤 농축하여 농축액을 체적비 1:1의 아세톤-초산에틸 혼합용액에 침전시킨 후 여과하고 실온에서 감압건조하였다. 수율은 약 80%였다.

C<sub>1</sub>P4VP가 염착실험중 반투막 안에서 반투막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C<sub>1</sub>P4VP를 물에 용해시켜 한외여파막으로 분자량 약 10,000 정도 이하의 것을 제거한 뒤 동결 건조하였다. 메틸화도는 동결건조한 C<sub>1</sub>P4VP의 탄소 및 질소의 원소분석 결과로 부터 구하였다. C<sub>1</sub>P4VP의 NMR 스펙트럼은 D<sub>2</sub>O를 용매로 사용하여 Varian T-60A NMR Spectrometer로 측정하였다.

### 2-3. 염착실험

염착실험은 분자량 1,000 정도의 화합물을 통과시킬 수 있는 셀룰로오스 반투막을 사용하여 평형투석법으로 10, 20, 30, 40°C에서 각각 70, 60, 50, 40시간 동안 shaking 하면서 행하였다. 사용염료는 메틸오렌지, 에틸오렌지, 프로필오렌지이었다. 염욕은 염착과정의 정전기적인력 및 물흡광계수의 값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0.1M의 NaHCO<sub>3</sub>-KH<sub>2</sub>PO<sub>4</sub>로 만든 pH 7의 완충용액을 사용하였다. 용비는 여러가지 농도의 염욕 50ml에 대해 폴리머 0.05gr (1,000:1) 으로 하였으며 평형염착량은 처음 염욕의 농도에서 평형염착시간에 도달한 후 남은 잔욕의 농도를 빼줌으로서 구하였다. 농도결정은 미리 작

#### 4 차화된 폴리(4-비닐피리딘)과 메틸오렌지동족체와의 상호작용(I)

성한 검량선으로부터 구하였고 이때 사용한 기기는 Varian cary 219 Spectrophotometer이며 측정파장은 메틸오렌지, 에틸오렌지, 프로필오렌지에 대해 각각 465nm, 472nm 및 474nm 이었다.

### 3. 결과 및 고찰

Fig. 1은 C<sub>1</sub>P4VP의 NM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. δ7.6과 δ8.5의 피크는 피리딘환의 수소에 해당한다. 폴리(4-비닐피리딘)의 NMR 스펙트럼과의 비교로 부터 δ1.2에서 δ2.1 까지의 넓은 피크는 주쇄의 메틸렌기 및 메틸기의 수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. δ4.0 근처의 피크는 피리딘환의 질소에 치환된 메틸기의 피크라 할 수 있다. 원소분석 결과로부터 계산된 메틸화도는 98%이었다.

뒷 부분에서 알수 있겠지만 C<sub>1</sub>P4VP와 메틸오렌지동족체와의 염착에 있어서 평형염착량과 잔여의 농도의 역수관계는 전부 직선으로 나타났다. 그러므로 이들 염착계는 Langmuir 형 흡착에 해당되어 염착의 일차결합상수를 구하는 데 다음의 Klotz식<sup>15</sup>을 사용하였다.

$$\frac{1}{r} = \frac{1}{nk} \cdot \frac{1}{c} + \frac{1}{n} \quad (1)$$

이 식에서 n은 염착자리수이고 k는 고유결합상수이며 c는 평형에 도달한 후 남은 잔여의 농도이고 r은 평형에서의 염착량이다. 여기서 1/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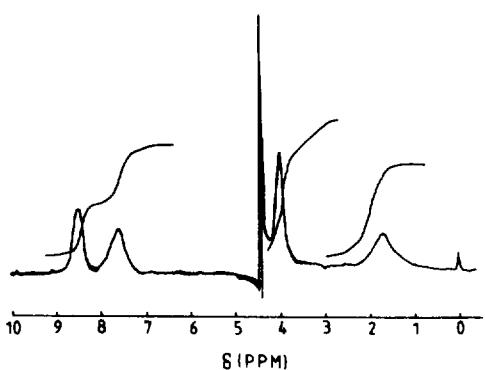


Fig. 1. NMR spectrum of C<sub>1</sub>P4VP in D<sub>2</sub>O.

과 1/c을 플롯하여 기울기와 절편으로부터 각각 1/nk과 1/n을 구할 수 있다. 그러나 1/n의 값은 매우 작아서 그 역수인 n의 값을 구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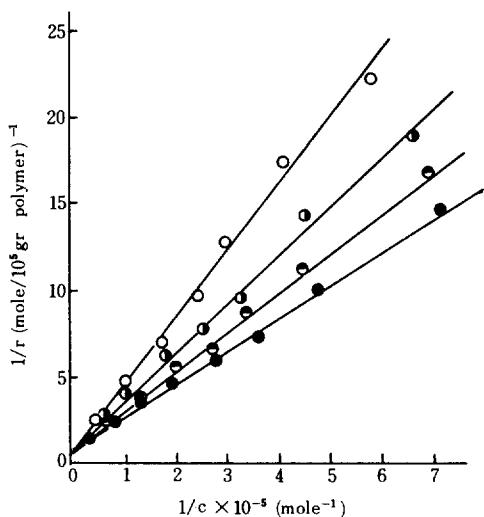


Fig. 2. Relation between 1/r and 1/c for the binding of methyl orange by C<sub>1</sub>P4VP : (○) 40°C; (◐) 30°C; (●) 20°C; (●) 10°C. NaHCO<sub>3</sub>-KH<sub>2</sub>PO<sub>4</sub> buffer, pH 7.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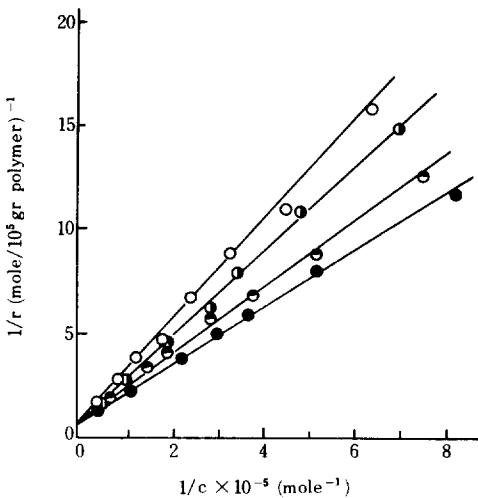


Fig. 3. Relation between 1/r and 1/c for the binding of ethyl orange by C<sub>1</sub>P4VP : (○) 40°C; (◐) 30°C; (●) 20°C; (●) 10°C. NaHCO<sub>3</sub>-KH<sub>2</sub>PO<sub>4</sub> buffer, pH 7.0.

더라도 오차가 크기 때문에 일차 결합상수  $K_1$  ( $=nk$ )으로 염착특성을 검토하였다<sup>16</sup>. 또한 열역학적파라메타인 엔탈피변화( $\Delta H$ ), 자유에너지변화( $\Delta G$ ), 엔트로피변화( $\Delta S$ )를 구하기 위해 다음의 Gibbs식 (2), (3) 및 (4)를 사용하였다.

$$\Delta H = -R \{d \ln(nk)/d(1/T)\} \quad (2)$$

$$\Delta G = -RT \ln(nk) \quad (3)$$

$$\Delta S = (\Delta H - \Delta G)/T \quad (4)$$

여기서 R은 기체상수이고 T는 절대온도이다.

Fig.2, Fig.3 및 Fig.4는  $C_1P4VP$ 와 메틸오렌지, 에틸오렌지 및 프로필오렌지와의 염착실험을 여러온도에서 행하고  $1/c$ 과  $1/r$ 을 플롯한 것이다. 이들 플롯트는 4종류의 온도에 대해 모두 좋은 직선을 나타내었다. 이들 그림에서 직선의 기울기의 역수인 일차결합상수는 모두 온도가 낮을수록 커졌다. 염착은 정전기적인력, 소수성작용 및 여러가지 다른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고<sup>17</sup> 온도가 낮을수록 일차결합 상수가 커지는 것은 소수성에 의한 염착을 제외한 염착이 발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<sup>7</sup>. 같은 온도에서 Fig. 2, Fig. 3 및 Fig. 4를 비교할때 염료의 알킬기가 클수록 기울기의 역수는 커졌다. 이것은 메틸오렌지, 에틸오렌지, 프로필오렌지에는 알킬기 크기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메틸오렌지동족체의 소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. (2)식에 의해 이들 염착계의  $\Delta H$ 를 구하기 위해 Fig. 2, Fig. 3, Fig. 4의 직선의 기울기로 부터 구한 nk를  $1/T$ 에 대한 대수플롯한 것이 Fig. 5이다. Fig. 5로 부터 각 온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이 기울기 값을 (2)식에 대입하여 각 온도내에서의  $\Delta H$ 를 구하였다.  $\Delta G$ 는 일차결합상수를 사용하여 (3)식으로 구하였다.  $\Delta S$ 는  $\Delta H$ 와  $\Delta G$ 를 사용하여 (4)식으로 구하였다. Fig. 6, Fig. 7, Fig. 8은 이 염착계에 미치는 온도에 대한  $\Delta H$ ,  $\Delta S$  및  $\Delta G$ 의 의존성을 각각 플롯한 것이다. Fig. 6, Fig. 7 및 Fig.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염료의 알킬기가 커짐에 따라  $\Delta H$  및  $\Delta S$ 는

커졌고  $\Delta G$ 는 작아졌다.  $\Delta H$ 가 커지는 것은 염료의 알킬기가 클수록 염료주변의 물의 규칙성은 보다 커져서 염료주변의 물을 파괴하는데에는 보다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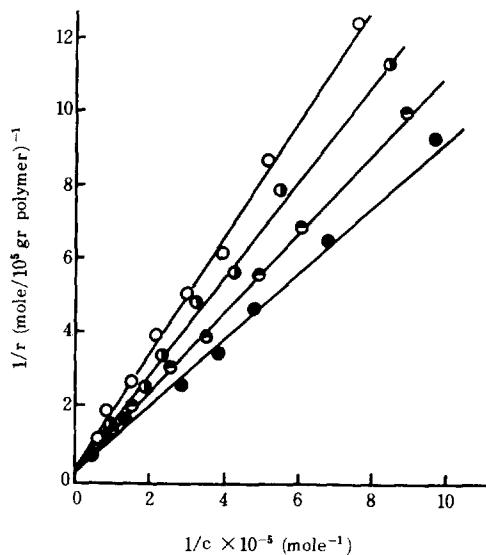


Fig. 4. Relation between  $1/r$  and  $1/c$  for the binding of propyl orange by  $C_1P4VP$ : (○) 40 °C; (◐) 30°C; (◑) 20°C; (●) 10°C.  $NaHCO_3 - KH_2PO_4$  buffer, pH 7.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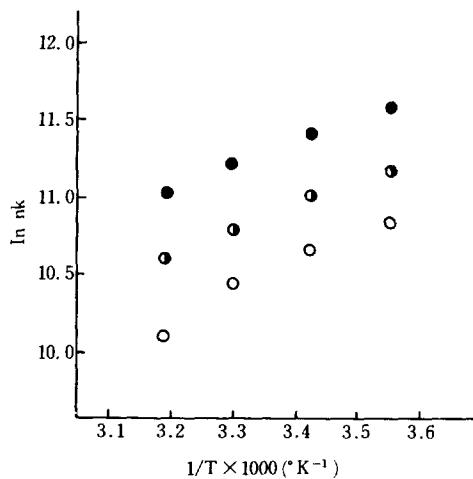


Fig. 5. Relation between  $\ln nk$  and reciprocal absolute temperature: (○) methyl orange; (◐) ethyl orange; (◑) propyl orange.

#### 4 차화된 폴리(4-비닐피리딘)과 메틸오렌지동족체와의 상호작용(I)

다<sup>18</sup>. 또한 염료의 알킬기가 커질수록  $\Delta S$  가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<sup>18</sup>로 설명될 수 있다. 즉, 염료의 알킬기가 커질수록 염료주변의 물의 규칙성은 보다 커져서 염착이 일어나기 전의 엔트로피는 보다 낮아지므로 염료주변의 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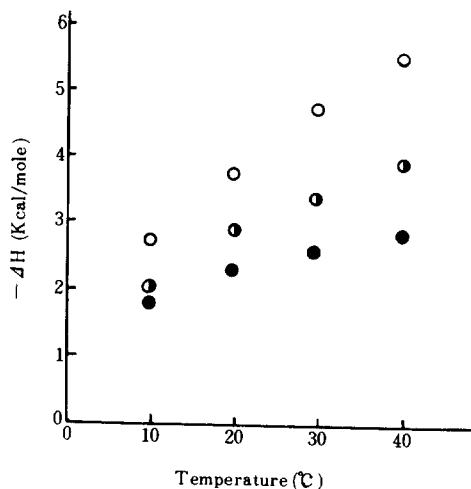


Fig. 6. Temperature dependence of enthalpy change for binding : (○) methyl orange ; (◐) ethyl orange ; (●) propyl orange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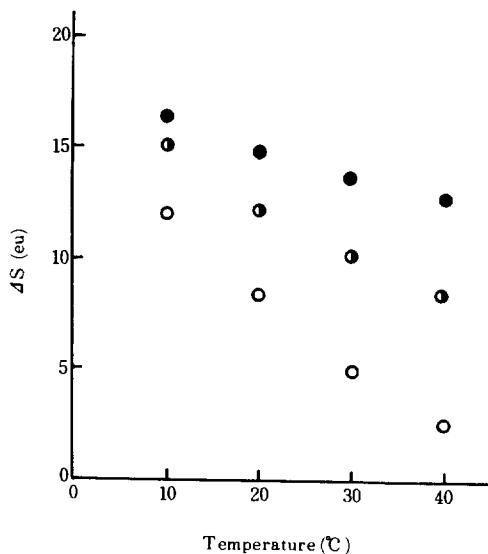


Fig. 7. Temperature dependence of entropy change for binding : (○) methyl orange ; (◐) ethyl orange ; (●) propyl orange.

을 파괴하는 과정의  $\Delta S$  가 커지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. 그리고  $\Delta G$  가 작아지는 것은  $\Delta S$  와  $\Delta H$  중에서  $\Delta S$  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<sup>7</sup> 일 것이다. 즉,  $\Delta H$ 로 보아서는 이 염착이 일어나기가 불리하지만  $\Delta S$  가 그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 염착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. 한편 온도가 증가할수록  $\Delta H$ ,  $\Delta S$ ,  $\Delta G$  는 모두 작아졌다. 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다. 온도가 증가할수록 염료의 탄화수소 주위의 물 및 고분자의 비극성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물의 분자간력이 약화되어 수소결합이 쉽게 파괴될 수 있으므로  $\Delta H$ 는 작아진다고 생각된다<sup>4</sup>. 또한 온도가 높을수록 염착이 일어나기전의 물의 엔트로피가 크기 때문에  $\Delta S$  는 작아지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<sup>4</sup>. 그리고 소수결합은 물의 수소결합이 파괴되어 생길 수 있는 결합이라 할 수 있고 이 과정은 흡열과정 이므로 온도가 높을수록 소수결합의 안전성은 커져서<sup>7</sup>  $\Delta G$ 는 작아지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. 이상의 결과로 부터 이 염착계에는 소수결합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Fig. 2, Fig. 3, Fig. 4 의 결과로 부터 구한 일차결합상수 및 Fig. 5, (2)식, (3)식, (4)식으로부터 구한 역학적파라메타의 값을 Table 1에 종합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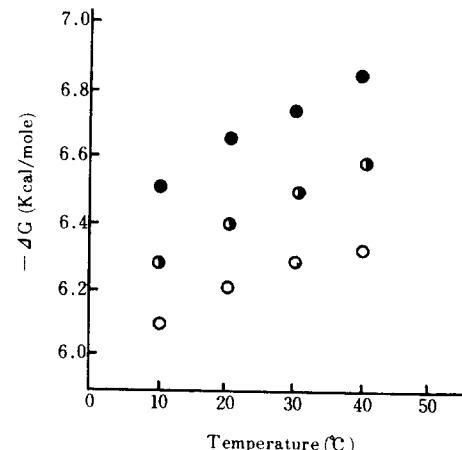


Fig. 8. Temperature dependence of free energy change for binding : (○) methyl orange ; (◐) ethyl orange ; (●) propyl orange.

**Table 1.** The First Binding Constants and the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the Binding of Methyl Orange and Its Homologs by C<sub>1</sub>P4VP

DYE	nk × 10 <sup>-4</sup>				ΔG*	ΔH*	ΔS*
	10°C	20°C	30°C	40°C			
M O	5.30	4.43	3.50	2.55	-6.28	-4.75	5.05
E O	7.36	6.27	5.00	4.16	-6.49	-3.41	10.16
P O	10.96	9.52	7.62	6.32	-6.74	-2.53	13.89

\* Measurements at 30°C.

다. Table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온도에서 알킬기가 커질수록 nk, ΔH 및 ΔS는 커졌고 ΔG는 작아졌다. 알킬기가 커질수록 ΔG가 작아지고 이에 따라 염료의 염착량이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ΔH로 보아서는 염료의 알킬기가 커질수록 염착이 어렵지만 ΔS가 그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에 염료의 알킬기가 커질수록 염착량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<sup>6</sup>. 즉, 소수성이 의한 염착은 ΔH 보다 ΔS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. polylysine과 메틸오렌지와의 염착<sup>1</sup>을 25°C에서 행하였을 때 ΔS는 1.4 eu 이었고, polyethylenimine과 메틸오렌지와의 염착<sup>2</sup>을 25°C에서 행하였을 때 ΔS는 3.2 eu 이었다. 비교적 소수성이 큰 수용성 고분자인 폴리비닐파로리돈과 메틸오렌지 동족체와의 염착<sup>7</sup>에서 ΔS의 값은 메틸오렌지, 에틸오렌지, 프로필오렌지에 대해 각각 5.7, 11.5, 14.9 eu를 나타내었다. 이 값들과 Table 1의 C<sub>1</sub>P4VP과 메틸오렌지 동족체와의 염착실험에서 구한 ΔS값들과 비교할 때 C<sub>1</sub>P4VP와 메틸오렌지 동족체와의 염착계는 소수성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고 할 수 있다.

결론적으로 염착실험에 의해 구해진 일차결합상수와 열역학적파라메타는 C<sub>1</sub>P4VP와 메틸오렌지 동족체와의 염착계에 소수결합이 상당히 관여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.

본 연구는 1985년도 한국과학재단 연구비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.

### 참 고 문 헌

- I.M. Klotz and J.U. Harris, *Biochemistry*, **10**, 923 (1971).

- I.M. Klotz, G.P. Royer, and A.R. Sloniewsky, *Biochemistry*, **8**, 4752 (1969).
- M. Niino, Y. Ueno, T. Araki, and Y. Sekine, *Polymer Comm.*, **24**, 124 (1983).
- R. Sinta and J. Smid, *Macromolecules*, **13**, 339 (1980).
- K. Kobayashi and H. Sumimoto, *Macromolecules*, **13**, 234 (1980).
- I.M. Klotz, *J. Amer. Chem. Soc.*, **68**, 2299 (1946).
- T. Takagishi and N. Kuroki, *J. Polym. Sci. Polym. Chem. Ed.*, **11**, 1889 (1973).
- T. Takagishi, T. Sugimoto, A. Hayashi, and N. Kuroki, *J. Polym. Sci. Polym. Chem. Ed.*, **21**, 2311 (1983).
- T. Takagishi, Y. Nakata, and N. Kuroki, *J. Polym. Sci. Polym. Chem. Ed.*, **12**, 807 (1974).
- 大津隆行, 木下雅悦, 高分子合成實驗法, p. 77, 化學同人, 1976.
- W.J. Hickinbottom and E.W. Lambert, *J. Chem. Soc.*, 1383 (1939).
- N. Menschukin and Z. Physik. *Chem.*, **6**, 41 (1890).
- F. Leavitt, V. Stannett, and M. Szwarc, *J. Polym. Sci.*, **31**, 193 (1958).
- J.B. Berkowitz, M. Yamin, and R.M. Fuoss, *J. Polym. Sci.*, **28**, 69 (1958).
- I.M. Klotz, F. Walker, and R. Pivan, *J. Amer. Chem. Soc.*, **68**, 1486 (1946).
- I.M. Klotz, *Cold Spring Harbor Symp. Quant. Biol.*, **14**, 97 (1950).
- T. Takagishi, K. Imajo, and N. Kuroki, *SEN-1 GAKKAISHI*, **32**, 518 (1976).
- C. Tanford, *J. Amer. Chem. Soc.*, **84**, 4240 (1962).